

우리 몸의 각 조직이 원활한 활동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항상 필요 산소의 공급을 받아야 한다. 산소의 공급은 피속에서 함께 순환하고 있는 적혈구가 담당한다. 우리몸의 적혈구의 전체량이 저하되어 있을 때를 빈혈이라고 말한다. 적혈구내에는 혈액소라는 철결합물질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우리몸 피의 붉은 색깔 농도가 정상이하로 떨어졌을 때를 말하는데 남자는 13.0gm%

량거리고 맥이 빨라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그외 피부가 거칠어 지거나 손톱이 변형되는 등의 증세가 올 수도 있다.

빈혈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먼저 빈혈이 있으면 신장에서 조직산소결핍을 감지하여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물질이 혈액내로 분비된다. 이 물질이 적혈구를 생산하는 골수를 자극하여 피를 만들게 한다. 그러나 만성신장질환이 있는

수도 있다. 빈혈은 적혈구를 만드는 충분한 재료가 있더라도 피를 만드는 장소인 골수의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즉 각종 항암제·항생제·살충제·벤젠 등 골수의 기능을 억제하는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에도 빈혈이 올수 있다. 적혈구는 일단 골수에서 생성되면 1백20일 정도 동안 혈액내에서 활동하다가 체내에서 수명을 다하고 처리된다. 그러나 적혈구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진 사람이 적혈구내의 효소계의 결핍이나 헤모글로빈의 이상 등이 있을 때에는 적혈구가 쉽게 파괴되어 빈혈이 초래될 수 있다. 적혈구가 선천적으로 정상적인 형태를 취하지 못하고 구상의 형태를 취할 때 적혈구나 모세혈관 등을 통과할 때 쉽게 파괴되어 빈혈이 올 수 있다.

빈혈

許 鳳 烈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과장>

이하, 여자에서는 12.0gm%이하일 때를 빈혈이라고 말한다.

빈혈의 증상은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산소결핍증에 의한 것과 산소결핍을 보상하기 위하여 심장활동의 증가에 의해 나타난다. 먼저 빈혈이 있는 사람은 혈액소의 양이 저하됨에 따라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지표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빈혈에 의한 조직의 산소결핍으로 피로감, 호흡곤란, 어지러움증, 실신, 두통, 이명, 우울증, 집중력 장애, 식욕부진 등의 다양한 임상증상을 호소할 수 있다. 그리고 순환기운동 기능 향진에 의한 증상으로는 가슴이 울

환자에서는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물질이 잘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빈혈이 올 수 있다.

이중에서 철결핍에 의한 빈혈이 가장 많은데 특히 여성, 그 중에서도 임신부에게서 흔히 볼 수 있다. 그외 위십이지장궤양이나 치질·위암·대장암·자궁근종 등이 있을 때 이들 병소로부터 계속적으로 피가 체외로 소실되어 피와 함께 철분이 빠져나갈 때 철결핍성빈혈이 올 수 있다. 임신이나 알콜중독 등에서는 엽산의 결핍에 의한 빈혈이 올 수 있다. 그리고 위암수술로 위장 전체를 절제한 후에는 비타민 B12의 흡수장애로 악성빈혈이 올

이와 같이 빈혈을 초래하는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빈혈환자가 있을 때는 정확한 진단을 하여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대장암환자에 있어서 변비나 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오기 훨씬 전에 빈혈의 증상이 올 수 있는데 이 때 빈혈의 흔한 원인인 철 결핍성빈혈로 생각하여 철제제를 투여하면, 빈혈 자체는 정상화될 수 있지만 이 때문에 조기에 대장암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어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므로 빈혈은 반드시 원인질환을 정확히 진단한 후에 원인에 합당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57**